

기우뚱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보물 7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 앞쪽(남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확인하다. 사진=고영배 기자

보물 7호인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이 앞쪽(남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커녕 정기적인 안전 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6일 본지 취재진의 현지 취재 결과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남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기울기는 동쪽

에서 서쪽으로 바라봤을 때(왼쪽 사진)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봤을 때 보다 확연해, 전문적 감식안이 없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탑의 기단부와 몸돌 사이가 들뜨거나 벌어진 부분이 없고 해체 보수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조적 문제보다는 지반침하에 의한 기울기 현상으로 보인다.

육안으로도 앞쪽으로 기울 상태 확인 "지반침하 가능성... 지속적인 점검 필요"



◇북동쪽 지대석이 아랫부분이 깨져 있고, 어른 손목이 들어갈 정도로 흠이 패어 있다.

4장의 사각형 돌로 이뤄진 탑의 지대석 역시 벌어진 틈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가장 심한 북동쪽 지대석과 남동쪽 지대석의 경우 틈이 6.5~8cm 정도 벌어져 있고, 북동쪽 지대석이 남동쪽 지대석보다 밖으로 6cm 정도 튀어나와 있었다. 앞쪽(남쪽)에서 탑을 보면 남동쪽 지대석이 밖으로 빠져나온 듯한 상태. 때문에 지반침하라면 남동쪽 지반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북동쪽 지대석은 아랫부분이 깨져

있고 바닥의 흙이 어른 손이 들어갈 정도로 패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오른쪽 사진). 이에 대해 석탑 등 건조물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1분과 위원인 김동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지반이 조금씩 내려앉아 기운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부터 그 상태였던 것으로 봐 안전에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현재도 내려앉고 있는지, 침하가 멈춘 것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안전 점검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건조물의 안전 진단을 맡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담당자도 "원종대사혜진탑의 경우 연 1~2회 안전 점검을 하는 정기 점검 대상(2003년 19건)에 들어 있지 않다"며 "해당 시·도나 문화재청에서 안전 점검을 의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413번지 고달사(사적 382호) 내에 있는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은 나말여초의 고승인 원종대사(869~958)의 부도로, 탑비의 비문에 의하면 977년(고려 경종 2)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장의 돌로 이루어진 사각형 지대석 위에 3단의 기단과 팔각 몸돌을 올려놓았으며 조각 수법이 매우 섬세하고 우아해 고려 초기의 대표적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주=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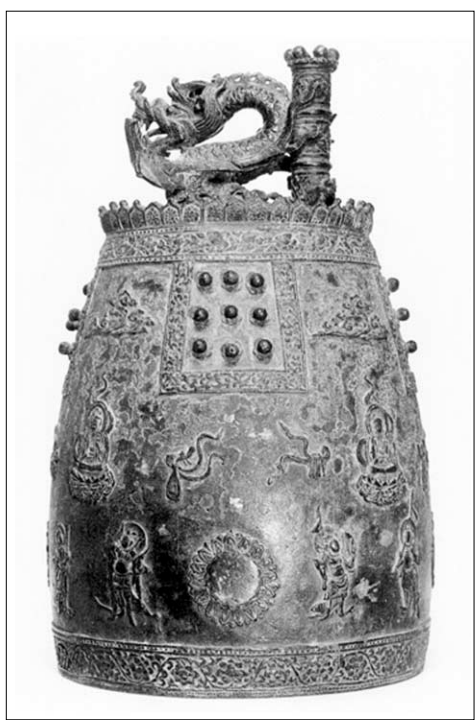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교공예 (10)

음악이 흐르는 종

통일신라시대는 정치적으로만 통일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었다. 불교미술의 핵심인 탑, 불상으로부터 의식구인 범종에 이르기까지 조형적으로 가장 고전(古典)적인 형식이 완성되는 때가 이 시기이다. 이 시기의 미술은 비례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형태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이상적인 형식은 고려시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종의 경우 771년(혜공왕 7)에 주조된 성덕대왕신종이 통일신라시대 종의 완벽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 용과 함께 들려 있다. 용의 몸은 S자형으로 과장되어 있고 갈기는 음통 뒤로 휘날리고 있다. 종의 윗면에는 오각형의 꽃 장식을 세우고 꼭대기에는 조그만 구슬 장식까지 올려놓았다. 여기서 시선을 약간 올리면 구슬장식이 음통 위에도 콤팩트하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밑과 종 몸체의 아래에 꽃 넝쿨이 띠를 이루고 있고, 유곽이라고 불리는 사각형의 넝쿨 띠에 9개의 유두가 있는 것은 통일신라 종의 전통 그대로이다. 하지만 그 사이 공간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동종(일본 중요문화재, 13세기, 높이 52.8cm, 후쿠오카 시가우미 신사 소장). 고려후기를 대표하는 종으로, 종 몸체에 새겨진 부조의 구성이 아름답다.

러 도상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로부터 살펴보면, 유곽 사이에 움켜쥔 S자형으로 머리를 든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그 아래에는 네 분의 불상이 연꽃대좌 위에 앉아 천의를 휘날리며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그 밑에는 활과 창을 든 신장이 2인을 한 조로 부처님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불상 사이에는 긴 천 자락이 길게 매달린 비파

일본 신사 소장 동종 고려후기 대표적 작품 불상 등 장식·큰 음통... 장엄한 울림 연상케

무런 장식 없이 윗면에 연꽃머리를 새겨넣은 정도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후기인 13세기에는 좀더 강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전에는 종 몸체의 여백에 비천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때부터는 비천에 불상, 보살상, 신장 등 도상들이 늘어난다. 아울러 이전보다 장식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일본 후쿠오카 시가우미진자(志賀海神社)에 소장된 동종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종이다. 첫눈에 종에 비해 용과 음룡이 눈에 띄게 커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종에서는 용이 천판에서 얼굴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구름

와 박판(拍板) 같은 악기가 음룡을 그리며 떠다니고 있다. 통일신라 종에서 볼 수 없었던 음악적인 요소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화려한 장식과 경쾌한 동감은 종을 치지 않더라도 이미 시각적으로 거룩하고 장엄한 울림을 표현해 내고 있다. 성덕대왕신종에서는 신비한 장중함이 떠오른다면, 이 종에서는 화려한 음악이 연상된다. 통일신라에 완성된 종의 이상적인 형식은 고려 후기에 와서 음룡로 장식된 불꽃을 한껏 피운 것이다. 마치 촛불이 꺼질 때 마지막 불꽃을 강하게 발산하듯이...

경주대 문화재학부

소장처 불명 사리장엄구 58건

황평우 소장, '불사리장엄 도록' 등 조사

최근 38년 만에 보관 장소를 확인한 창녕 솔정리 동3층석탑(국보 34호) 사리장엄구(본지 410호 10면 참조) 외에도, 발견된 기록은 있으나 소장처를 알 수 없는 사리장엄구가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www.chpri.org)를 통해 밝혔다.

황 소장은 1991년 중앙박물관이 펴낸 <불사리장엄> 전시회 도록과 2000년 문화재연구소가 <감은사지 동3층석탑 사리장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부록으로 실은 '한국 불사리장엄구 유물목록'에서 소장처가 나와 있지 않은 유물을 정리한 결과 모두 60건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창녕 솔정리 동3층석탑과 영양 삼지동묘전석탑(문화재자료 83호)은 최근 소장처가 확인됐다. <삼국유사> 등 고문헌의 기록에만 나와 있는 3건을 제외해도 55건에 이른다.

◆소장처가 불분명한 사리장엄구

본래 있던 곳	시 대
감은사지 동3층석탑	602년
창녕사지 석탑	855년
동화사 금당암 동탑	875년
성주사지 5층석탑	통일신라
성주사지 동·서 3층석탑	통일신라
부석사 3층석탑	통일신라
대운사 북미륵암 3층석탑	고려전기
삼천사 대지국사탑	14세기
연곡사 3층석탑	고려
철창사 부도	고려
(외 48건)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처가 확인 안 된 사리장엄구 중에는 △감은사지 동3층석탑(국보 112호, 쌍탑) △부석사 삼층석탑(보물 239호) △성주사지 서3층석탑(보물 47호) △연곡사 삼층석탑(보물 151호) 등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탑에서 발견된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권형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은 최근 발간한 보존과학 연구보고서 <박물관 보존과학> 3집(연간)에서 지류(紙類)문화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상 상태와 간단한 응급처리 내용을 소개했다. 한지로 된 지류문화재는 공기 중의 습기나 표면의 이물질, 곤충에 의한 손상이 가장 많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김성희 씨는

古書 등 지류문화재 중성한지에 싸 보관

중앙박물관 관리법 소개

"한지로 된 지류 문화재의 경우 중성 한지에 싸서 습기가 높지 않은 곳에 보관해야 하며 부드러운 평브로 표면의 먼지를 자주 털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물 먹는 하마' 같은 습기 제거제를 함께 넣어 두는 것도 한 방법.

날장으로 된 문서류나 고지도 등은 가능하면 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004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3~4월 발표논문 신청 접수

외국어 분과 신설 마지막날 종합토론

2004년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범 스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결집대회 조직위원회는 2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4년 5월 1~2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리는 제2회 결집대회 논문발표 신청 접수(skb.or.kr)를 3~4월 두 달간 받는다"며 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2차 대회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로 발표·토론할 수 있는 분과를 신설해 외국학자들의 참여를 대폭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마지막 날 종합토론을 통해 각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종범 스님은 "발표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논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서둘렀다"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대회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2260-3128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법장스님의 종단운영 4대 기조

"수행과 전법중심의 종단, 전종도가 참여하는 원용살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불교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조 실 석 주
주 지 원 혜
사 부 대 중 일 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우.135-870)

총무소 02)511-6070~4 / 포교실 02)516-5652 Fax : 02)544-2141